

“바로 지금, 나부터” 경남농협, 고향사랑기부제·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1 부·울·경 '내 고향 사랑꾼' 발대식 2 '생활 속 탄소 저감' 캠페인

경남·부산·울산농협 '내 고향 사랑꾼' 발대식

경남농협은 지난 3월 부산·울산농협과 경남농협 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내 고향 사랑꾼' 발대식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다.

참가자들은 부·울·경의 첫 '내 고향 사랑꾼'이 되기로 서약하고, 적극

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기금 유치에 노력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주양 경남농협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은 행정구역과 별개로 상호 출향 인사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고향”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울·경 농업 관련 단체와 농협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농협·고향생각주부모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경남농협은 지난 3월 고향생각주부모임 창원시지회와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는 탄소중립 동참과 기부문화 확산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경남농협은 '2050년 탄소중립' 정책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경남 관내 농업인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생활 속 탄소 저감 활동'을 ESG 경영 실천 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탐방로 쓰레기 줍기, 탐방객 대상 대화용품 사용 권장, 탐방로 주변 야생 화초 심기 등 활동을 했다.

김주양 본부장은 “경남농협 전 임직원들은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사명감으로 농협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2

농업 ·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우리 농산물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자 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고향에서 준비한 답례품(우리 농산물)이 제공됩니다.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16.5%)